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뜻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이사야 50,4-7

화답송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필리피 2,6-11

복음환호송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복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마르코’
성가 | 입당성가 호산나, 히브리아 아이들이 ♪
예물준비 [10] 영성체 [504]
파견성가 [115] 1,4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신동은
임순남 엘리사벳	조복용 베네딕
임순남 엘리사벳	이수산나
김경련 울릿따	임영희골롬바
민병택 베드로 4주기 추모	민완준필립보 민덕미안젤라
민병택 베드로	가족
이중근 요셉	익명
이중근 요셉	강안드레아
이중근 요셉	울뜨레아
임덕 신부 Francis. H. beninati	박정호
최성안 박순구아녜스 박대영	최미양마르티나
생미사	봉헌
황선데이브 황태준 니콜라스	손명희엘리사벳
손영소 스테파노 손성연 가브리엘라	손명희엘리사벳
이지연 안나레지나	익명
손명희 엘리사벳	익명
강민찬 마태아	익명
이경호울리안나 이지원세라피나생일축하	이정현헬레나
대자, 대녀	박기목알버트
임창현 아론 영육건강	임영희 골롬바
하늘처럼 성가대원 영육건강	임영희 골롬바
지훈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김수아아녜스생일 김주아 박혜원클라라	최미양 마르티나
백선욱 레오	백경호임마누엘 강재원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3월 24일	백승민	송명근	민재인	민재인	김영숙	한테레사 최사도요한 양측라라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이우스티나
3월 30일	정유진	민완준 김승연 정은철 임지수	민재인	고은경	양미숙	한테레사 최사도요한 양글라라 김실비아 이우스티나 조바실리오
3월 31일	백이백	강호영	김애희	김애희	김중선	한테레사 최사도요한 양글라라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이우스티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52,687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13,2

▶성삼일과 부활성야 전례 안내

주님만찬 성목요일(3/28): 밤8시 대성당
주님수난 성금요일(3/29):밤 7시 십자가의 길부터 대성당
부활성야(3/30): 밤 9시30분 대성당
*부활성야 미사중 세례와 견진성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견진성사 예정자와 대부모와의 만남예식과 리허설

일시: 3/24(주일) 10:30 아랫성당
대자녀는 대부모를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대자
녀로서 대부모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대부모는 대자녀를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하
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영적으로 인도할
것을 하느님 앞에 약속합니다."

▶제 24회 나눔의 바자회

날짜: 5월 19일(주일)
추진위원장: 강호영 안드레아 516-521-3113
부위원장: 강경모 토마스 310-413-1653
후원금 접수: 사무실 또는 친교실 재무데스크

▶성물 구입

오늘 성물 판매합니다. 세례식, 견진성사 받는 교우들을 위
해 성물을 미사전, 후 친교실에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부활 꽃 봉헌 받습니다~♂

3/17 손명희

▶판공성사표

사순 시기중의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본
당 또는 다른곳에서 성사를 보신분들은 성사표를 사무실 앞
통에 넣어주세요.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
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여성 39차 꾸르실료 교육 수강자

4/18(목)~21(일) 뉴튼 분도수도원
그리스도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분과의
귀한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 주어지는 교육과정입니다.
신청: 4/9까지, 간사 김마리클레어 917-485-0530

▶청년,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매주일11am 문의: 단장 이기원 929-208-5147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본당 레지오 마리에 활동 단원들이 3월 17일, 아치에스 행사를
마련하였다. 아치에스는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이 1년 동안 죄악
의 권세와 싸울 힘과 축복을 받기 위해, 단체로 모여 자신을 봉
헌하는 예식이다. 아치에스(Acies)는 라틴어로 군진(軍陣), 즉
전투 대형으로 늘어선 군대의 의미, 봉헌 사열식이라고 부르
기도 하며, 주로 3월 25일 주님탄생 예고대축일 전후로 거행된다.

이날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에 상징인 백실리움 깃대에 손을
얹고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이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
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니다"라고 봉헌
문을 합송하며, 성모님께 드린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주일의 말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인동성당 주임 | 조재근 마르코 신부

주님께서 성대한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분의 수난과 죽음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오늘입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하고 외치던 목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며 그분을 죽이라는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수난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이사 50,7) 이사야가 노래하는 주님의 종은 수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르 15,34)하고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았음을 느끼셨습니다. 희망이 사그라진 듯 보였으나 예수님은 소리쳐 부르짖었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이사야가 노래한 ‘주님의 종’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자처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표적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불행 앞에서 쉽사리 좌절하거나 절망하며 주저앉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께 청합시다.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로운 성주간이 되기를 빕니다. **✠**